석굴암 구조의 의미, 위에서 옆으로

From Vertical to Horizontal: the Significance of Seokguram's Layout

임영애 **Youngae Lim**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국문요약

석굴암은 동아시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방형 평면의 前室과 짧은 복도, 그리고 원형평면 위에 반구형 천장을 구축한 主室이 기본 구조이다. 이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원형평면에 반구형 천장을 얹은 주실의 형태이다. 방형 평면은 흔하지만, 원형평면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특별한 구조를 두고 신라인이 창안했다고 보기보다는 외부 어디에선가 아이디어를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같은 구조를 중국 석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너머의 지역과 관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발표자는 방형과 원형 평면이 결합된 석굴암의 구조를 신라 안에서 찾아보았다. 물론 전실 팔부중상의 양식, 크기, 하부 안상석을 주실과 비교하여, 석굴암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방형 전실을 염두에 두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석굴암 구조가 7-8세기 신라 횡혈식석실분 마지막 단계에 출현하는 방형평면+반구형천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석굴암 건축가는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방형평면+반구형천장 구조를 응용하여 방형평면 위에 올려진 반구형천장을 분리하여 옆으로 내려놓았다. 그 이유는 감실 조각을 비롯한 20여구의 天界 존상을 보다 많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응용이 가능했던 것은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들여쌓기천장의 경험, 첨성대를 비롯해 불국사 서석탑에 이르기까지 돌을 다뤘던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가설은 짧은 복도에 세워진 팔각기둥, 그리고 전실과 주실을 구성하는 조각이 위계에 따라 배치된 점이 뒷받침해준다. 팔각은 사각과 원형을 이어준다. 사각의 모서리를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원이 되기 때문이다. '팔각'은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고대 보편적 상징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석굴암 복도에 놓인 팔각석주인 것이다. 팔각석주가 있는 짧은 복도에는 지금도 사찰에서 속계와 불계를 구분짓는 사천왕상이 배치된 것도 복도를 경계로 지상과 천상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로 봤다. 석굴암 원형 주실은 마치 봉분처럼 흙으로 덮여 있어 횡혈식석실분과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도록 한 것도 어쩌면 신라 고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석굴암의 구조는 신라 횡혈식석실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지만,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달랐다. 신라인의 석굴을 향한 바람은 횡혈식석실분을 축조했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토록 바랐던 불교 석굴을 재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불교 석굴이라는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익숙한 구조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발휘될 수 있었을 것이다. 원형평면을 지닌 반구형천장을 옆으로 내려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신라인의 의도적 선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방형전실과 팔각기둥을 지나 원형주실로 들어가 예배하는 일은 마치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Seokguram Grotto displays a structure the like of which can hardly be found in East Asia. Its basic structure is composed of the rectangular pre-chamber, a short corridor, and the round main chamber with a semi-sphere ceiling. The most conspicuous one of the features of the structure is the main chamber. A round grotto is an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As for the conspicuous structure, researchers have thought that the design idea was imported from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created by people of Silla. Grottos with a similar structure cannot be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China and thus they have thought that the design idea was obtained from somewhere beyond China.

The presenter has sought to find objects made during the Silla Period with a design similar to that of Seoguram on the premise that those who designed this grotto had a rectangular pre-chamber in consideration of the pattern and size of the eight attendant deities in pre-chamber, the decorative stones at the bottom, and the main chamber. Based on such a premise, the presenter thinks that the structure of Seokguram was an extension of the rectangular plane/semi-sphere ceiling structure that appeared toward the final stage of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of Silla in the 7th – 8th Century. The architectural designer of Seokguram separated the semi-sphere ceiling raised on the rectangular plane and put it down sideways, applying the rectangular plane/semi-sphere ceiling structure of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of Silla, supposedly to place the 20-plus heavenly figures and the niche sculptural pieces more effectively. It is thought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a structure was based on the skills of handling stone structures like the vaulted ceiling of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Cheom-

seongdae (an astronomical observatory in Gyeongju), and the Western Stone Pagoda in Bulguksa Temple.

The premise like that set up by the presenter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octagonal columns of the short corridor and the sculptural pieces placed in the pre-chamber and the main chamber are displayed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order. An octagonal shape is something between a square one and a round one. With continued trimming of each corner of a square shape, you will get a round shape. An octagonal shape refers to a symbolic system universal in ancient times as one linking the earth to the heaven. The octagonal stone columns placed on the short corridor of Seokguram are a reflection of such a system. The figur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set up at temple distinguish the mundane world and the Buddhist heaven. Likewise, the corridor of Seokguram where the octagonal stone figures are set up is thought to be what distinguishes the earth from heaven. The round main chamber of Seokguram, which is covered with soil like a tomb, is perhaps an attempt to make it look not much different from the appearance of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of Silla.

As stated in the foregoing, the design idea of the structure of Seokguram is thought to have been derived from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of Silla, but people of Silla made their own grotto creatively and independently with the experience and skills accumulated in the construction of tunnel-type stone-chamber tombs, although the idea related to a Buddhist grotto was derived from outside. Their choice of putting the semisphere ceiling on the round plane down sideways was thought to be good. One entering the entrance and passing through the rectangular pre-chamber and the octagonal columns to the round main chamber feel the solemn atmosphere comparable to that of rising from the earth to he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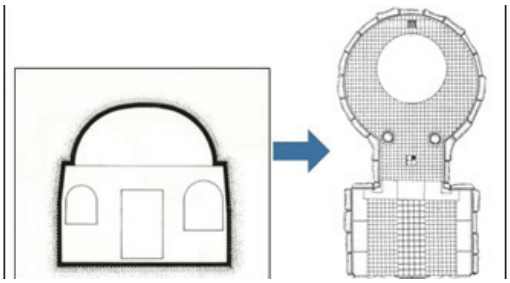
석굴암은 동아시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방형 평면의 前室과 짧은 복도, 그리고 원형평면 위에 반구형 천장을 구축한 主室이 기본 구조이다. 이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원형평면에 반구형 천장을 얹은 주실의 형태이다. 특별히 여기는 이유는 방형 평면은 흔하지만, 원형평면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구조를 신라인은 어떻게 창안했을까를 두고 관련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신라인이 창안했다고 보기보다는 외부 어디에선가 아이디어를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라인이 이런 구조를 어디선가 접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멀리 125년에 건립된 로마의 판테온이나 5-8세기의 아프가니스탄의 원형평면을 가진 圓形堂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도 한다. 같은 구조를 중국 석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너머의 지역과 관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8세기 중엽, 석굴암의 독특한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일까. 신라인은 석굴암 축조를 위해 중국을 넘어 인도에서 아이디어를 취했을까. 혹시 동아시아, 더 좁혀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

석굴암 축조는 돌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발표자는 천장을 둥글게 만들겠다는 석굴암 건축가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7-8세기 무렵 신라의 횡혈식석실분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이런 석실분 축조 전통은 고구려 대안리 1호분, 천왕지신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는 6세기 전반부터 8세기까지 경주 일원에 축조된 200여기의 횡혈식석실분을 축조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렇다. 이 가운데 방형 평면에 반구형 천장 구조를 한 충효동5호분, 쌍상총이라고도 불리는 노서동137호분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횡혈식석실분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특히 노서동의 쌍상총은 주실만 가로×세로×높이가 3.3×3.0×3.6m로 바닥에서 2m 높이까지는 다듬은 돌을 수직으로 쌓았으며, 그 위부터는 들여쌓기해 천장을 둥글게 만들고, 그 위에 1매의 커다란 판석을 뚜껑으로 얹었다. 이 시기가 되면 대형의 횡혈식석실분은 쌓기수법이 정교해진다. 유사한 구조는 서악동 석실분, 용강동고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서악동 석실분에서는 금강역사상을 선각한 문짝이 발견되었다. 물론 고분과 석굴의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횡혈식석실분을 불교의 금강역사상이 지키도록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천장을 둥글게 만드는 아이디어는 이미 7-8세기 신라에 존재했다. 다만 석굴암 주실과의 큰 차이는 평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횡혈식석실분은 방형평면+반구형천장이며, 석굴암 주실은 원형평면+반구형천장이다. 신라 횡혈식석실분과 같은 방형평면+반구형천장의 구성은 사실 동아시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중국의 횡혈식석실분, 쿰트라석굴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석굴, 앞서도 언급한 고구려고분의 대안리1호분, 천왕지신총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석굴암 주실과 같은 원형평면+반구형천장은 동아시아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석굴암 주실의 원형평면+반구형천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발표자는 석굴암의 구조는 횡혈

식석실분의 방형평면+반구형천장에서 천장에 해당하는 반구형을 방형평면 옆으로 내려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삽도 참조). 다시 말해 방형평면의 벽체 위에서 반구형천장만을 분리하여 방형평면 옆에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석굴암은 평지가 아닌 토함산의 해발 565m 지점에 터를 닦아 구축했다. 수직으로 높이 쌓는 것보다는 옆으로 방형과 원형을 벌려두어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방형평면과 반구형천장을 분리해 옆으로 벌려 쌓음으로써 반구형천장에 구현하기를 희망한 天界 혹은 佛界를 위한 공간 확보였을 것이다.



발표자의 가설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석굴암 방형 전실이 주실과 동시에 조영되었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연구자에 따라 석굴암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방형전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처음 축조됐을 당시 석굴암은 짧은 복도와 원형 주실만 존재했으며, 방형 전실은 이후 언젠가 추가로 내어 달았다고 본 것이다. 석굴암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방형 전실이 고려되어 있었을까? 발표자는 석굴암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방형 전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본다.

석굴암을 처음 축조했을 때 방형전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연구자들은 전실에 배치된 8구의 팔부중상이 원형주실의 조각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실과 주실을 함께 조영했다면, 조각의 양식이 이토록 차이 날 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8구 팔부중상 가운데는 주실 조각과 비교해 조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가 있다. 8구 가운데 특히 4구가 그렇다. 8구 가운데 건달바상처럼 조각이 우수한 예도 있고 건달바의 오른쪽(向左)에 서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이하 A상)처럼 조각 수준이 떨어지는 예도 있어 편차가 심하다. 이처럼 편차가 심하지만, 적어도 가장 우수한 건달바상은 수준이 주실 조각에 못지않다.

흥미롭게도 건달바상과 A상은 크기도 다르다. 가장 우수한 건달바상의 너비는 116.7cm인데 반해 A상은 108.0cm로 무려 8.7cm 차이가 난다. 반면 우수한 건달바상은 주실의 범천, 제석천상의 너비와 오차가 거의 없다. 이뿐이 아니다. 팔부중상을 받치는 안상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팔부중상을 받치고 있는 전실 하부의 안상석은 하나의 돌에 2개의 안상을 나란히 새기고, 1개의 안상 위에 1구의 팔부중상이 서있도록 했다. A상은 하부 안상석과 너비도 달라 하부 안상석과 아귀가 맞지 않는

다. 너비도 작고 조각 기술도 떨어지는 A상은 후대에 교체한 상일 가능성이 높다. A상 뿐만 아니라 조각수법이 떨어지는 나머지 3구도 너비가 일정치 않아 어떤 상은 4cm 가량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반면 조각 수준이 비슷한 3구의 상은 너비가 일정해 오차 범위가 0.3-1.3cm 정도이다. 이처럼 8구의 팔부중상 가운데 3구는 크기가 같고, 나머지는 크기가 저마다 다르지만, 팔부중상을 받치고 있는 하부의 안상석은 주실 안상석과 모양도 크기도 거의 같다. 전실과 주실 구조의 기본이 되는 하부 안상석을 살펴봐도 전실은 처음부터 설계안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8구의 조각수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전실의 판석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팔부중상 8구 가운데 정확히 존명이 파악되는 상은 현재 4구이다. 아수라, 건달바, 용, 야차가 그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 4구는 나머지 상에 비해 조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팔부중상은 모두 바위를 밟고 서있는데, 조각이 좋은 건달바, 용, 야차 만이 동일한 모양의 바위를 밟고 서있다. 또 팔부중 8구 가운데 조각 수준이 좋은 4구는 도상이 정확하여 연구자 간에 이견이 없는데 반해,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4구는 식별이 어려운 점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팔부중상의 너비와 양식이 다른 것은 8구 팔부중상의 제작 시기가 저마다 다름을 알려준다. 한편으로는 전실 팔부중상의 판석을 교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도 알려준다. 실제로 짧은 복도의 사천왕상 가운데 서방 광목천왕은 가장 중요한 얼굴이 훼손되었지만 교체하지 않고 얼굴만 보수했다. 그것도 원래 얼굴이 주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을 테지만, 원형대로 측면의 얼굴로 보수하지 못하고 정면 얼굴로 대신했다. 이는 복도 사천왕상은 판석 전체를 교체하는 일이 불가능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복도와 주실은 판석 교체가 불가능한 공간이었던데 반해, 전실은 교체가 가능한, 다시 말해 천장이 없는 개방구조였음을 반증한다.

전실은 처음부터 주실과 함께 조영했다는 전제 아래, 처음으로 돌아가 '원래 방형평면 위에 놓였던 반구형천장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는 발표자의 가설을 뒷받침해줄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첫째, 짧은 복도에 세워진 팔각기둥이다. 팔각기둥은 석굴암 안에서 수직 하중을 받아주는 역학적인 기능이 없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팔각기둥과 반구형천장과의 연결 부위를 나타내는 종단면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둥의 중심선과 반구형천장의 수직 하중을 전달하는 면이 어긋나 있어 실제적으로 반구형천장의 수직 하중을 팔각기둥이 지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팔각기둥 사이에 끼워 넣은 시야를 가리는 석재는 일제강점기에 끼워 넣은 것이다. 구조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팔각기둥을 방형과 원형 사이에 세워 둔 이유가 무엇일까.

팔각은 사각과 원형을 이어준다. 사각의 모서리를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원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고대의 전통적, 보편적 사유체계에서는 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로 하늘과 땅 사이에는 九州와 八極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天을 상징하는 圓堂, 地를 의미하는 方壇이 결합된 형태가 팔각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중국 漢代에는 제천의례의 장소로 泰壇이나 圓丘이외에 팔각형의 제단

이 사용되었다.

'팔각' 은 불교미술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삼단팔각대좌, 八角圓堂, 팔각목탑, 팔각원당형승탑을 들 수 있다. 특히 석굴암 본존상의 대좌로 처음 등장하는 '삼단팔각대좌' 는 이후 불좌상에서 가장 애용되는 대좌이다. 삼단팔각대좌는 상대, 중대, 하대의 삼단으로 이뤄졌으며, 중대가 팔각기둥인 대좌를 일컫는다. 이 경우 지대석은 사각형, 중대는 팔각, 상대는 원형으로, 중간의 팔각형 중대는 땅과 하늘을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앙련의 상대는 원형인데 그 위에는 천상의 부처가 앉는다. 팔각형 중대를 잘록하게 표현한 것은 미감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필자는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기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봤다. 마치 서왕모의 곤륜산과 같다. 서왕모가 머문다는 곤륜산은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이 마치 호리병처럼 좁고 가파르게 되어 있어 쉽게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쉽게 오를 수 없지만, 누구나 그곳에 도달하기를 염원했다. 발표자는 이전 연구에서 이런 곤륜산 이미지가 불교의 수미산에 투영됐고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중대가 잘록하고 팔각인 삼단팔각대좌는 바로 수미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봤다.

팔각은 네모에서 원으로, 원에서 네모로 가는 선상에서 항상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상징된다. 이처럼 '팔각' 은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고대 보편적 상징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석굴암 복도에 놓인 팔각석주인 것이다. 땅을 상징하는 방형전실과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주실을 긴밀하게 이어준다. 이는 8세기 이후 불상의 대좌로 크게 유행했던 삼단팔각대좌와 같은 상징체계인 것이다. 이 팔각기둥이 건축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형과 원형 사이에 독립적으로 놓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전실과 주실을 구성하는 조각의 위계이다. 방형 전실에는 가장 하위신인 팔부중상이 있고, 위계에 따라 금강역사, 그리고 복도의 사천왕상으로 이어진다. 입구에서 만나는 팔부중상, 금강역사, 그리고 사천왕상은 8-9세기 불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8-9세기 불탑에서 방형 기단에 팔부중을, 그 위의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역시 위계에 따라 조각해 두었다면 석굴암은 이를 평면으로 전개했다.

불교의 세계관에는 三界가 있다. 바로 欲界, 色界, 無色界이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이며, 색계는 욕망은 사라졌으나 형상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무색계는 형상마저 사라진 세계이다. 사천왕은 욕계의 여섯 개 하늘나라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四王天에 살며 수미산 중턱을 지키는 천신이다. 금강역사와 사천왕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문' 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때 '문' 은 세속과 부처의 세계를 구분짓는다. 마찬가지로 석굴암의 금강역사상과 복도의 사천왕상은 俗界와 佛界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이며, 같은 역할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팔각석주도 한다. 팔각석주가 '복도의 사천왕상' 과 '주실 입구의 범천 제석천' 사이에 세워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天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는 사천왕상을 지나 가장 중요한 원형 주실로 들어서면 좌우에 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보살상, 그리고 본존불상이 있다. 십일면관음보살상 좌우로 10구의 승려상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형 주실은 천상의 세계이다.

발표자는 방형과 원형의 평면이 결합된 석굴암의 구조를 신라 안에서 찾아보았다. 7-8세기 신라 횡혈식석실분 마지막 단계에서 출현하는 방형평면+반구형천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것이다. 석굴암 건축가는 신라 석실분의 방형평면+반구형천장 구조를 응용했다. 방형평면 위에 올려진 반구형천장을 분리하여 옆으로 내려놓은 것이다. 그 이유는 감실 조각을 비롯한 수십구의 天界 존상을 보다 많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함과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구조의 응용이 가능했던 것은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들여쌓기천장의 경험, 첨성대를 비롯해 불국사 서석탑에 이르기까지 돌을 다뤘던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석굴암 원형 주실은 마치 봉분처럼 흙으로 덮여 있어 횡혈식석실분과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도록 한 것도 어쩌면 신라의 고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멀리서 보면 능처럼 보였는지, 18세기에 석굴암을 방문했던 임필대(任必大, 1709-1773)도 "바깥에서 보면 작은 능과 같다"고 했다. 석굴암의 구조는 신라 횡혈식석실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지만,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은 달랐다. 신라인의 석굴을 향한 바람은 횡혈식석실분을 축조했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토록 바랐던 불교 석굴을 재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불교 석굴이라는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익숙한 구조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발휘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인이 석굴암 축조를 위해 선택했던 토함산 해발 565m 지점은 원형평면의 반구형천장을 옆으로 내려놓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이고, 특히 욕계와 불계의 중요한 존상을 빠짐 없이 구현하면서 내부가 정교하게 꾸며진 석굴을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원형평면을 지닌 반구형천장을 옆으로 내려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신라인의 의도적 선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방형전실과 팔각기둥을 지나 원형주실로 들어가 예배하는 일은 마치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